

지역 소식

북 아시아 지역

지역 계획 2016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느끼는 기쁨 —강동 와드 선교사와 최근 개종자들

이 기사는 2016년 지역 계획의 비전과 목적을 주제로 하는 연재 기사다.

이번 3월에는 2016년 지역 계획 비전 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기쁨을 찾는다'라는 비전에 대해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가 얻는 기쁨은 무엇인가?

지난 1월 말, 8개월이 넘게 영동 스테이크 강동 와드에서 봉사하던 김신영 자매 선교사와 이하연 자매 선교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가게 되어 작별 인사와 간증을 나누었다. 이 두 자매 선교사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는 내내 '사랑한다' '행복하다'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회원들 역시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헤어지는 순간까지, 이들은 아쉬움과 고마움으로 맞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

엘마서는, 암몬과 엘마, 그의 형제들이 선교 사업 도중 재회했을 때 느낀 특별한

기쁨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이제 암몬의 기쁨은 어찌나 컸던지 그가 충만하게 되었나니, 참으로 그가 그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삼키운 바 되어, 자기

힘이 소진되기에 이르매, 그가 땅에 다시 쓰러지니라.

이제 이것은 심히 큰 기쁨이 아니더냐? 보라, 이는 바로 진실로 뉘우치고 겸손하게 행복을 찾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받지 못하는 기쁨이니라."(앨마서 27:17~18)

강동 와드는 가족 같은 단란한 분위기로, 회원 및 구도자 50여 명이 함께 예배를 본다. 이 와드에서는 최근 2년간, 약 15명의 구도자가 침례를 받는 등 선교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회원들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셨기 때문이며, 선교사와 최근 개종자들이 선교 사업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선교사와 최근 개종자들이 선교 사업을 통해 얻는 기쁨에 대해 알아보았다.

HUGS: Help Us Grow Spiritually

강동 와드에서 봉사하는 선교사에게는 특별한 이름이 붙여진다. 그것은 바로, '강동 와드 특별 청년 독신 성인'이다. 회원들은 이들을 선교사이자 와드 회원으로 받아들이며, 허물없이 대한다. 매주 장로 선교사들을 포용해준다는 강동 와드 박상원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선교사들을 사랑하며, 그들은 강동 와드의 소중한 회원입니다. 저는 매주 장로님들을 안아 주고, 자매 선교사님들과는 악수로 대신합니다. '포용하다'의 뜻을 가진 영어 HUGS를 'HUGS: Help Us Grow Spiritually(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라는 의미로 풀어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와 회원들이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함께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구도자가 진심으로 개심하여 침례받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감독으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강동 와드 선교사와 최근 개종자들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뻐하며(히라맨서 6:3)

올해 17세가 된 강동 와드 청년 연진영 자매는, 약 2년 전에 침례를 받았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청년가 많이 없었어요. 그때 저랑 이름이 똑같은 한진영 자매님을 알게 되었고 친해졌어요. 진영 언니랑 어떻게 친해졌는지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처음엔 긴 치마도 불편하고 교회가 낯설었지만, 이제는 다른 청년들이랑 이야기하고 놀 때 가장 행복해요.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를 알아 가고 개종하시는 걸 보는 게 참 좋아요.”

이런 연 자매의 말에 더해, 올해 스무 살인 한진영 자매는 “저는 다른 청년들을 돌보면서 제가 인내심이 많아지는 것을 느껴요. (웃음) 그리고 스스로 사랑이



위 사진: 강동 와드 청년들과 선교사
아래: 김영복 형제 · 한중례 자매 부부

많아지고 발전하는 걸 느낄 때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라고 말한다.

주께서는 내 수고의 결실로 심히 큰 기쁨을 내게 주시나니(엘마서 36:25)

선교사들은 직접적으로 강동 와드 회원들을 돕는다. 최근 새로운 청년 회장이 부름을 받을 때까지 회장에 공백 기간이 있었다. 자매 선교사들은 감독의 요청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청년들을 사랑으로 돌보았다. 강동 와드 ‘특별 청년 독신 성인’다운 노력이었다. 자매 선교사들에게, 강동 와드에서 봉사하며 느끼는 가장 큰 기쁨에 대해 물어보았다.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울 때, 작은 일이라도 도움이 될 때 가장 기쁩니다. 기존 회장단에서 새로운 청년 회장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잠시 청년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제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 제가 하는 일이 와드에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의 가치를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않지만, 오히려 어려울 때 주님께 의지하면서 더 겸손해집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제게 큰 기쁨입니다.”

선교 책임자로 봉사하고 있는 김영복 형제와 그 아내 한중례 자매는 침례받은 지 1년이 안 된 최근 개종자들이다. 김영복 형제는 복음 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묻자, ‘안식일에 교회에 참석하는 자체’가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한다. 그는 수십 년 동안을 혼자 경전을 탐구하고 교회에 대해 알아보며 스스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고, 마침내

북 아시아 지역
지역 계획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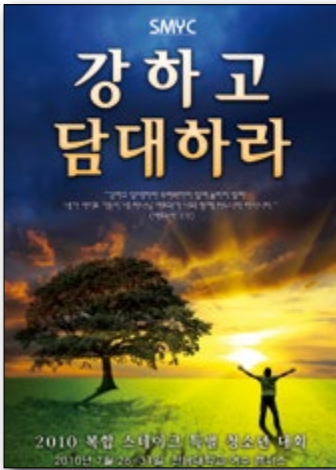


작년 5월에 침례를 받았다. 그에겐 너무도 큰 의미의 침례식이었다. 이후 김 형제의 인도로 아내 한중례 자매도 복음을 배우며, 11월에 침례를 받았다.

김 형제는 이렇게 자신의 간증을 전했다. “이생은 시험의 날들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고, 주어진 시간에 신앙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 책임자로 부름받았지만, 아는 것이 없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다른 회원과 구도자들에게 전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내 한 자매도 “몰몬경을 읽고 좋은 말씀을 볼 때, ‘이 참된 복음을 잘 선택했구나!’ 생각합니다. 아직 초보 회원이라 몰몬경을 읽을 때 어려운 용어나 내용이 있지만, 저희 형제에게 질문하여 답을 얻고, 함께 공부하며 이해해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겸손히 생각을 나누었다.

최근에 개종한 강동 와드 회원들과 선교사들이 느끼는 기쁨은 간구와 노력의 결과로 오는 커다란 보상과도 같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쁨을 느낄 때를 기억해본다.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벱차[는](제3니파이 4:33)” 순간이, 2016년과 그 이후에도 복음 안에서 지속될길 소망한다. ■

한국 FSY의 역사: 지난 SMYC, EFY를 돌아보며



2010년 SMYC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북 아시아 최초로 브리검 영 대학의 EFY 프로그램을 적용한 예다. “강하고 담대하라”(여호수아 1:5)는 주제로 열린 이 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신앙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신앙과 표준을 수호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대회 이후 한국에서 선교 사업을 나가는 청년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만 보아도, SMYC가 청소년과 청년에게 준 영향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2011년 EFY는 SMYC로 불리던 것을 본래 이름인 EFY로 환원하여 개최한 대회로서, 한국과 여러 국가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2010년 SMYC에서 지켰던 청소년들의 불꽃이 이어 나가도록 도왔다. “믿고 바라며 견디자”(신앙개조 13조)라는 주제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많은 것을 견뎌 왔다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는 의지와 희망을 얻었다.



2013년 에 대회는 다시 SMYC로 이름을 변경했다. 이 대회의 특별한 점은 청소년 시절 참가자로 대회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조고문으로 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교리와 성약 87:8)라는 주제는 청소년들이 높은 표준을 세우고 수호하며 빛을 발하도록 권유했으며, 그들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2016년 에는 SMYC가 교회 공식 청소년 대회로 지정되면서 FSY(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 대회에서도 이전 대회에서 참가자로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조고문이 되어 대회와 선교 사업에서의 영적인 경험들을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나누게 될 것이다.

2016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로 “힘써 앞으로 나아가라”(니파이후서 31:20)가 2016년 FSY 주제다. 상호 향상 주제로 FSY 대회와 상호 향상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청소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적극적인 신앙을 행사하도록 도움을 얻을 것이다. ■



FSY 참가, 중요한 결정

길수려 자매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현 재의 청년 시기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여러 중요한 결정들을 해 왔다. 그중 나의 삶의 방향을 크게 좌우했던



중요한 결정은, 청소년 시절 SMYC에 참가 하겠다고 신청한 것이다.

2010년, 한국에서 SMYC가 처음 열렸고,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나는 입시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회 참석을 망설였다. “어름 보충 수업을 일주일 동안 빠질 경우, 그 결과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걱정 때문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이후 며칠 동안, SMYC에 가서 얻고 싶은 것들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신앙에만 의지해 오던 나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물론경이 참된지, 그리고 교회가 참된지 나 스스로 알고 싶어졌다. SMYC에 참석하면,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과, 그 이상의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입시에 대한 걱정을 뒤로하고, SMYC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대회에서 무엇이 좋았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훌륭히 잘 준비된 모임에 참석하며 나는 벅찬 기쁨과 평안함을 느꼈다. 대회 기간 동안, 내가 궁금해했던 것들에 대해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영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소망이 더 자랐으며, 덕분에 선교 사업을 나가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도움을 줄 훌륭한 친구들도 선물로 주셨다. 대회에서 만난 좋은 친구들과 함께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비슷한 시기에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고 간증을 나누며 서로 강화하고 있다.

대회에 가지 않았더라도 이런 영적인 성장의 기회와 이런 많은 좋은 친구들을 얻을 수 있었을까? 대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특권이었다. 대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과 훌륭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다가오길 바라시며, 항상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간증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이다. 그분께서 신뢰하시는,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딸이 되고 싶다. ■

2016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FSY) 대회 질의응답

Q: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니파이후서 31:20)라는 2016 FSY 대회 주제 성구는 어떻게 정해졌나요?

A: FSY는 2016년 청소년 상호 향상 모임의 주제를 따릅니다. FSY는 각 스테이크/와드의 후기 성도 청소년들의 상호 향상 모임 및 세미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매주 상호 향상 모임의 주제를 상고하며 활동할 때 여러분은 대회에서 영적인 계시를 받을 준비를 할 수 있으며, 하루하루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Q: 나는 FSY의 주제 성구를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구를 암기하면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성구 하나를 암기하는 일은 마치 새 친구 한 명을 사귀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 때 도움을 주고 영감과 위안을 주며 변화가 필요할 때 동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새로 얻는 것과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FSY 대회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것이 있나요? 아래 링크를 통해 FSY 대회 준비위원회에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기 링크: TINY.CC/4E537X

후기성도 가족 서비스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한국 사무소가 2016년 1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는 개인과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설립한 비영리 사설 기관이다. 사회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을 돌보도록 감독과 지부 회장을 대상으로 도움을 주며, 교회의 복지 정책에 따라, 또한 복음의 원리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를 행한다. 미국, 캐나다 등 8개 국가에서는 이미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은 약 5개월 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6년 1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의 역사는 19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지자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 때 ‘Social Advisory Board(사회 자문 위원회)’가 처음 조직되었으며, 이는 1919년 상호부조회에 귀속되어 입양 및 사후 관리의 업무를 운영했다. 1970년, 이 위원회는 각종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일 조직으로서 ‘Social Services

Department(사회 복지 부서)’로 발전했고, 1973년에 가족 서비스의 전신인 ‘LDS Social Services(후기 성도 사회 서비스)’가 조직되었다. 이 조직은 1999년, ‘LDS Family Services(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감독 및 지부 회장을 지원한다.

- 사회적·정서적 문제의 치료를 위한 전문가(상담사·의사) 자원의 정보 제공
- 지역 지도자들에게 사회적·정서적 문제에 대한 지침과 훈련 제공
- 사회적·정서적 건강에 관한 교회 자료 제공 및 활용 안내
- 중독 극복 및 예방 프로그램의 조직과 운영
- 학대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자녀, 배우자, 노인 및 기타 학대의 피해자 및 가해자)
- 전임 선교사의 정서적 건강 문제를 지원(예비 선교사, 봉사 중인 선교사,



조기 귀환 선교사)

- 스테이크의 요청에 따라 결혼 및 가족 관계 강화 프로그램 지원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한국 사무소 연락하기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회원들은 소속된 와드나 지부의 감독·지부 회장과 상의한다. 감독·지부 회장은 회원들을 보살피기 위해,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이메일: koreaoffice@ldsfamilyservices.org
- 전화 : (02) 2038-2549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 팩스 : (02) 2253-1393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6길 5 (우편번호 04585),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 한국 사무소 매니저 김윤석 ■



필멸의 삶에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

정신 질환과 정서적 장애를 겪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신경증과 정신 이상, 유전적 소인, 염색체 결함, 조울증, 편집증, 정신분열증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그러한 문제의 복잡한 속성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당혹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러한 고통도 필멸의 삶에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 중 하나이고, 고혈압과 싸우거나 갑자기 나타난 악성 종양을 인정하듯 그러한 것을 인정하는 것을 수치스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깨진 그릇과 같으니”,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40쪽.

“나의 기초” 과정을 마치고

이호종 형제

나의 기초 과정 진행자/
전 창원 스테이크 도계 와드 감독

2015년 초, 감독/지부 회장들에게 공문이 왔는데, 그것은 ‘귀환 선교사 지원 안내서’였다. 귀환 선교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라는 내용이였다. 동시에 우리는 “자립으로 향하는길”과 “나의 기초” 워크숍 책자를 통해서 스테이크 또는 와드 지부별로 자립반을 구성하도록 권고 받았다. 당시, 창원 스테이크 도계 와드의 감독이었던 나는 우리 와드의 독신 성인들이 대부분 귀환 선교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두 가지를 연결할 계획을 세웠다. 귀환 선교사인 독신 성인들을 대상으로 자립 특별반을 만든다면 그들에게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다른 분들의 권유를 받았고, 15주

동안 하게 될 공과를 내가 직접 인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자를 받아서 개략적으로 훑어 보면서, 그 내용이 너무도 단순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자립지원서비스 책임자로 일하는 조현석 형제의 조언을 받은 뒤 이 자립반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하는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이 반은 교사가 필요 없으며, 단지 그 반을 진행할 진행자만 필요할 뿐이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반원들은 금방 제자리를 찾았다. 우리는 열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서로의 경험과 간증을 나누었다. 그 시간은 정말 우리에게 뜨거운 열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교회에 오기 어려운 나름의 사정을 뒤로하고 이들이 성실하고 꾸준히 자립 공과반에 참여할 수 있었던 데에는, 과거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시절에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EFY와 SMYC에 참석했던 경험이 밑거름이 되었다. 당시, 우리 도계 와드에서 단일 와드로는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그 대회에 참석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청년이 된 이들은 주저없이 ‘나의 기초반’에 등록하고 그 과정을 끝까지 완주해 낼 수 있었다. 자립반에서 그들의 눈빛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나의 기초” 공과는 정말 잘 짜여진 과정이었다. 1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함’에 관한 것이었다. 처음엔 자립이 신앙과 무슨 관련이 있나에 대해 약간의 의문이 있었지만 이 청년들의 영성은 그 관련성을 금세 이해하게 해주었다. 현실적인 자립 못지 않게 영적인

자립이 중요하며, 그 영적인 자립을 기초로 현세적 자립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청년들은 자체적인 토론을 통해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만물은 영적이니라”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공과는 ‘현명한 시간 관리’, ‘순종’, ‘재정 관리’ 등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실천하는 것이 숙제였다. 그날 공과가 끝나면 그다음 한 주는 새로이 배운 내용을 실천해야 한다. 물론 이전에 배운 원리들을 계속 실천하는 것도 요구된다. 결심한 것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배운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드디어 ‘일에 집중하고, 의식을 받음’이라는 공과를 끝으로 마지막 활동을 하고, 모든 것을 마쳤다.

우리가 자립특별반을 운영하는 동안,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1보좌이신 야마시타 장로님이 우리 와드를 방문하신 것이다. 그분은 우리 자립반에 함께 참석하셔서 그분의 간증과 경험을 들려주셨다. 청년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간증하는 시간에 많은 청년들이, 공과를 처음 접할 때의 마음가짐과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에 대한 차이에 대해 나누었다. 한 형제는 본인이 자립해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대부분의 내용은 이번 공과를 하지 않아도 아는 내용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던 내용을 직접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 내용을 보고하는 과정을 통해,



사진 위: 도계 와드 자립반 공과에 참여한 야마시타 장로 부부
아래: 자립반 반원들의 모습

용기와 인내심을 얻는 수확이 있었다고 믿는다. 자립의 중요성을 몸과 가슴으로 느끼고, 자립해야 하는 분야가 단지 재정적인 것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배운 것 자체로도 우리 청년들에게는 큰 수확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시간 나는 스스로를 돌아본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자립하였는가를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나에게도 많은 부족한 면들이 보인다. 난 진행자로 참여하는 동안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우리 청년들도 이 공과를 통해서 자립에 대한 것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길렀기를 소망한다.

어떠한 힘든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자립되어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 그것이 경제적인 상황이든,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든, 그것은 상관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자립하기를 바라신다. 또한 우리가 자립하여 다른 이들을 돕길 바라신다. 자립에 관한 최근 교재나 자료들은 제일회장단이 승인하신 것이며,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자료들임을 간증한다. ■

자립 칼럼: 자립 프로그램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유망 산업분야라고 평가받으며 20년 이상 강세를 보이던 조선과 철강 분야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신문과 방송을 메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으로 이미 들어선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심상치 않은 수준입니다. 높은 실업률과 고용 불안 상태가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기술인들을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의 50·60대 기술인들이 떠나고 나면 그 뒤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중소기업의 제조업체의 아이러니한 걱정도 결코 과장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들이 정년 직장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설계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지난 1년 넘게 한국 자립지원서비스 책임자로 전국의 여러 사업가들과 인사담당자, 직장인, 직업전문학교

관계자들을 만나고, 지방 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 센터를 수십 곳 방문하여, 성공적으로 취업하고 창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자신을 갈고 닦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바라는 직장을 찾고, 자신의 사업도 튼실하게 이끌어 가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회원들에게서도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정실하게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복음 원리에 입각한 실질적 '자립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교회에서 선정한 취업, 창업, 직업 교육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이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마련된 '자립' 프로그램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가족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고, 십일조와 헌금에 충실하고, 복음 생활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영위해 나가고, 가족을 충분히 부양하고, 나아가 이웃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영적, 현세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이 '자립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교회의 자립 프로그램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톱질하느라 바빠서 톱날을 갈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가 만든 도구가 세상 전문가들이 만든 도구보다 나을 리 있겠느냐고 단정지어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자립 상태와 자신의 강점을 점검해 보고, 직업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적, 인성적 역량을 학습하고, 취업이든 창업이든 교육이든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에서 실용적인 실습과 경험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자가 내일도 부자일 거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오늘 가난하니 내일도 가난할 거라고 체념해도 좋을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앙으로 '자립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준비하면, 쓰입니다. ■

제공: 한국자립지원서비스

아빠와 자녀들이 함께 노는 시간

정민중 형제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목적은 '가족이었으나, 돈을 벌기 위해 포기해야 했던 것도 가족이었다. 가족 관계가

깨지거나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한참 크는 과정에서, 밤낮없는 직장 생활에 아이들의 얼굴도 보기 힘들었다. 일이 삶을 지배하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조차 시끄럽고 귀찮게 느껴지는 때도

있었다.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실제로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과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아빠로 기억될까, 그저 돈을 벌어드주는 존재는 아닐까?' 나는 관점을 바꾸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로 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용기를 내어 도전해야 했다. 안정된 직장을 퇴사하고 창업을 결심한 것이다. 퇴사와 창업 이후, 나는 마침내 자녀들과 함께 노는 시간을 만들 수 있었다. 자녀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개발했다. 함께 놀이를 하며, 아이들이 생각하고 도전하고, 성공과 실패를 통해 배우는 모습을 발견했고,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가 교육의 일부라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노력하던 중, 최근 한 사단법인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창작놀이 공모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총 600여 편이 응모된 가운데 내가 제출한 창작놀이가 대상을 받기도 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매순간이 기적이며,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아이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직장 생활을 하는 한국 아빠들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가족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놀아줄 수 있는 날이 오길 소망한다. ■

정민중 형제의 블로그(<http://blog.naver.com/newmin1492>)에 방문하면 가족이 함께하는 재미있는 놀이를 볼 수 있다.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자매 3명 / 장로 3명



강채은 자매

울산 지방부
방어진 지부
서울 선교부



구본승 장로

대전 스테이크
유성 와드
서울 선교부



김준 장로

제주 지방부
제주 지부
서울 남 선교부



박수아 자매

영동 스테이크
강동 와드
아이다호 보이시
선교부



장정현 장로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워싱턴 페더럴
웨이 선교부



하늘예린 자매

창원 스테이크
진해 와드
독일 베를린
선교부

후기성도 SNS 서포터즈

후기성도 알리미 2.5기 모집



@ 지난 1기 성과

- > 총 12명의 청년/기혼 회원 참여
- > 교회관련 검색결과 35% 이상 긍정적으로 변화
- > 소셜미디어 엑스로 진행
- > 회원 운영 블로그 및 SNS 채널 활성화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의 성안남녀 회원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선교사업 및 홍보활동에 관심있는 누구나

활동 내용

월 1회 모임
발대식 이후 SNS 활용 방법 배우기 / 실습 / 공개활동

지원 방법

교회 홈페이지 (@ds.or.kr) 회원 소식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유선 문의

이메일: jilee@idschurch.org, 전화: 070-4816-2515